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전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아름다운 사랑

주간충현

나의 힘이 되신 예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서 1:21)

발행인: 박영호 발행처: 충청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30 © 2004 충청교회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환 편집인: 노광원 편집: 이태복

전국일꾼양성을 위한 힘찬 행진

충청장학생 선발 및 지급현황

전국일꾼 양성을 목표로 하는 충청장학회의 장학사업은 철저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그동안은 성도들의 정성 어린 헌금으로 마련된 50억 기금에서 나오는 순수 이자로 장학사업을 진행해 왔으나, 최근에는 은행이율이 너무 낮아서 순수 이자만으로는 장학회 운영이 힘든 상황이 되었다. 이에 교회는 장학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아낌없이 지원하기로 하였고, 이를 위해서 각 부서에서는 불려한 자로 좋은 장이라도 아끼며 불필요한 낭비가 없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성도들 역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장학헌금을 후하게 드리고 있다. 전국일꾼 양성을 위한 우리의 행진은 이렇게 힘차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이런 행진에 놀라운 복을 베푸셨다. 올해만 해도 전반기에는 236명에게, 후반기에는 256명에게 총 487,903,000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었던 것이다. 선한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채워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크게 찬송하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고후 9:8). 하지만 우리가 더 깊이 감사하고 더 크게 찬송할 이유는 따로 있다. 그것은 그 동안 장학혜택을 받고 교회의 신앙생활을 받아온 많은 젊은 이들이 어느새 무럭무럭 자라서 이제는 어엿한 전국일꾼으로서 서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난 5월 12일에는 232명의 젊은이들을 서리집사로 임명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나무에 물을 준다고 해서 나무가 금방 쭉쭉 자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전국일꾼 양성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장학금을 지급하고 신앙적인 지도를 해나간다고 해서 금방 열매가 눈에 확 띄는 것은 아니다. 시간이 필요하며 인내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첫 열매를 보고 있다. 그러므로 좀 더 힘을 내서 전국일꾼 양성에 힘쓰도록 하자. 장학사업을 위해서 적극 헌신할 뿐 아니라 젊은 일꾼들을 위하여 기도의 몸을 충분히 주도록 하자. 이 일 위에 하나님께 복을 주신다면, 다음 세대를 십자가 복음 앞에 세울 전국일꾼들이 우리에게서 많이 나오게 될 것이다.

달고요한 그 말씀(5~7월 금요집회메시지 요약)-전국 복음

제2장.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인가?

제2장. 장래에 입할 천국

제3장. 이 세상에 있는 천국

제4장. 천국의 비밀

제5장. 천국의 생명

제5장 천국의 생명

생명은 참으로 미래에 속한 것이다. 사도 바울도 장차 죽을 몸은 벗고 썩지 않을 부활의 몸을 입는 날을 간절히 기뻐하였다(고후 5:1-4).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4절 참조) 부활의 몸을 입는 것! 이것이 곧 영생이다. 그러니까 영생은 전인(全人)과 관련되어 있다. 영혼만이 아니라 몸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다. 영생의 미래성은 요한계시록에 다시 언급되어 있다. "또 저가 수경같이 맑은 생명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빛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열매를 맺히되 열두 가지 그 실과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생하기 위하여 있더라"(계 22:1-2). 다시는 저주가 없다.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거하실 것이다. 육체와 죄라는 방해물들은 모두 사라져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더라(22:3-4).

분명히 영생은 장래에 속한 것이다. 이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상생하게 더 배울 수 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통령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요 10:10). 그리스도는 이 세대의 마지막 날인 '그 날'에 만민을 살리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지금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다. 그래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요 3:36).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도 나 보지 아니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요 5:24). 그렇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영생을 얻은 자들이다.

그러면 이 영생은 무엇인가? 먼저,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요 17:3). 머리로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것,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 서로 깊은 교제가 있는 것을 뜻한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서로 교감하면서 이미 그대의 생명을 체험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고전 6:19-20). 감한한 것은 비록 불완전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참된 지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다. 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가!

영생의 또 다른 의미는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영의 생명이요(요 3:3, 3:6). 장차 우리가 입게 될 새로운 몸은 완전하게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활력을 받고 생기가 있으며 관능을 부여받은 몸이다(고후 5:4-5). 바울은 이것을 '기쁨'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엢 1:13-14). 우리에겐 이미 이러한 기쁨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기쁨에 대한 보상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일반적으로 계약이 성립되면 거래 금액의 일부를 먼저 지급함으로써 그 계약이 성사되었다음을 확증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여 계시다는 사실이 곧 이 계약금과 같다는 뜻이다. 완전한 생명을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주어진 것이다. 그러나 생령의 임재는 우리가 앞으로 올 '그 날'에 성령의 온전함을 체험하게 되는 그 생명의 보증금이다.

또한 우리에게 생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주어졌다. "처음 익은 열매"는 무엇인가? 나무에 달려 있는 열매들 가운데 처음으로 잘 익어서 먹을 수 있는 열매를 말한다. 그것은 추수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하나님께서는 부활로 입할 생령의 첫 열매로 우리들에게 생령을 주셨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완전한 생령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생령을 첫 열매로 맛있게 하심으로 장차 입할 생령을 미리 체험하도록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다. 최고의 영광이 아직 임하지 않았지만 장차 입할 미래가 우리 안에서 이미 시작된다. 미래에 속한 그 영광이 오늘 거기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영생의 의미이다. 이것이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다. 영생은 매일매일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생령으로 사는 것을 의미한다.

(7월 16일, 23일, 30일자 메시지 요약)

DAY OF YOUR ACCOUNT

"(7)For not one of us lives for himself, and not one dies for himself; (8)for if we live, we live for the Lord, or if we die, we die for the Lord; therefore whether we live or die, we are the Lord's. (9)For to this end Christ died and lived [again], that He might be Lord both of the dead and of the living. (10)But you, why do you judge your brother? Or you again, why do you regard your brother with contempt? For we shall all stand before the judgment seat of God. (11)For it is written, "AS I LIVE, SAYS THE LORD, EVERY KNEE SHALL BOW TO ME, AND EVERY TONGUE SHALL GIVE PRAISE TO GOD." (12)So then each one of us shall give account of himself to God." (Romans 14:7-12)

Christians claim to live and die for the Lord, but sadly most do not. Are you really living for the Lord, and if you die, will you be really dying for Him? Have you given much thought toward the day of your account? Too often Christians criticize and evaluate others, forgetting that this is the Lord's job. All, whether weaker or stronger, will have their lives (accounts) judged by God. We all know that if we owe something, it is our duty to pay it back. If we break the law, we have to pay the penalty. Galatians 6:7 tells us, "Do not be deceived, God is not mocked: for whatever a man sows, this he will also reap." Many Christians say, "I live and die for the Lord," but are you really doing it? Take a good look at what you are doing because "every careless word that people speak; they shall give an accounting for it in the day of judgment" (Mt. 12:36). You need to get serious about your account, and make sure it is in order for the day is coming when God will judge it.

You cannot cancel your accounting date. Hebrews 2:3 says, "how will we escape if we neglect so great a salvation?" Jesus Christ, the Son of God, came down to this world and died for all sin, so that your debt could be paid in full. No one can disregard God's grace without penalty. Death is unavoidable. Whether you are weak or strong, rich or poor, famous or unknown, you will die. The Bible clearly states, "it is appointed for men to die once and after this comes judgment" (Heb. 9:27). God promises that you only have to die once, but after that, you have to face His judgment, "Rejoice, young man, during your childhood, and let your heart be pleasant during the days of young manhood. And follow the impulses of your heart and the desires of your eyes. Yet know that God will bring you to judgment for all these things" (Eccl. 11:9). God will scrutinize everything about you on your account day. You cannot postpone or avoid it. As such, you should not pretend it would not happen. You should start living as if it would happen any moment!

You will receive either a prize or a punishment for your account. Just like the story Jesus told about the talents, those who make use of God's gift will be rewarded, and those who do not will be destroyed. In the talent story, the master returned after a long time "and settled accounts" with his slaves (Mt. 25:19). Those who were fruitful with their masters talents received more, but the master said to the one who was not, "You wicked, lazy slave, you knew that I reap where I did not sow and gather where I scattered no seed" (Mt. 25:26). If you say you work for God, but do nothing for Him, then the master is going to say, "Throw out the worthless slave into the outer darkness; in that place there will be weeping and gnashing of teeth" (Mt. 25:30). On the other hand, if you really deny yourself by faith, then you will "obtain an inheritance which is imperishable and undefiled and will not fade away, reserved in heaven for you" (1 Pet. 1:4). Do you believe it? I believe it. Everyone "will give account to Him who is ready to judge the living and the dead," and those in Christ will receive the prize.

You will stand individually before God. Romans 14:12 says, "So then each one of us will give an account of himself to God." People tend to

think that when they die or Christ returns they will be standing in a group of millions, and therefore God will not look so closely at their account. Our God is an Almighty God, and He calls each one of us to stand before Him, "For we must all appear before the judgment seat of Christ, so that each one may be recompensed for his deeds in the body, according to what he has done, whether good or bad" (2 Cor. 5:10). You need to prepare for this day. You need to know how you are going to answer to the Lord. Are you ready now to respond?

You cannot answer for other people, nor can other people answer for you on the day of your account. Your mother, father, husband, wife, lawyer, doctor, and friends cannot help you. No one can help you on this day because God holds the final accounting book, "And I saw the dead, the great and the small, standing before the throne, and books were opened; and another book was opened, which is the book of life; and the dead were judged from the things which were written in the books, according to their deeds. And the sea gave up the dead which were in it, and death and Hades gave up the dead which were in them; and they were judged, every one of them according to their deeds" (Rev. 20:12-13). My dear friend, I am asking you now, are you sure you are living for the Lord, and if you are dying, are you dying for the Lord? The Bible is very clear that no one, not even your pastor, can answer for you.

You cannot deny your account. Everything, including your motives, will be clearly in the open. 1 Corinthians 4:5 says, "Therefore do not go on passing judgment before the time, but wait until the Lord comes who will both bring to light the things hidden in the darkness and disclose the motives of men's hearts; and then each man's praise will come to him from God." Nothing can be hidden, so you have no excuse. God will reveal all your secrets. You cannot say, "I do not remember whether I did that," because it is written down. Ecclesiastes 12:14 reminds us, "For God will bring every act to judgment, everything which is hidden, whether it is good or evil." Your accounting record will be valid.

The day of your account is when everything is finalized. If your name is in the book of life, you will go on to eternal life. If your name is not in the book of life, you will go on to eternal fire (see Rev. 20:15). 1 Timothy 5:24-25 says, "The sins of some men are quite evident, going before them to judgment; for others, their sins follow after. Likewise also, deeds that are good are quite evident, and those which are otherwise cannot be concealed." Proverbs 28:13 also reminds us, "He who conceals his transgressions will not prosper, but he who confesses and forsakes them will find compassion." Please repent, and do not judge others, "But you, why do you judge your brother? Or you again, why do you regard your brother with contempt? For we will all stand before the judgment seat of God" (Rom. 14:10). If you do not deny yourself, you cannot live or die for Jesus. He is writing everything down for the day of your account. Make that day a wonderful day by really living and dying for Jesus. 

다음을 주일 설교

심판의 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 내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롬 14:7-12)



김성관 목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것은 대부분 말뿐이지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정말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을 많이 생각해 보셨는지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책망하고 평가하는지요? 이는 오직 주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약한 자든 강한 자든 모든 사명을 하나님 앞에 서서 이 땅에서의 삶을 평가받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밋을 짓고 있다면, 그것을 갚는 것이 우리의 의무인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압니다. 밋을 위반했다면, 당연히 응분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을 밋을 밋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마 12:36). 여러분이 장차 받게 될 심판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심판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할 수 없는 심판의 날을 대비하라

심판의 날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들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의 죄는 하나님 감없이 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에도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들한히 여기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러한 사람은 형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강강한도 약약한도, 돈이 많은 가난한도, 유명하던 무명하던,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히 9:27). 죽는 것은 네 번뿐이지만,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천년이란 내 어떤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네 눈이 보는 대로 좇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전 11:9). 심판의 날이 이르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자세히 조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연가할 수도 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치 심판의 날이 없는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심판의 날이 지금 당장이라도 이루어질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영생과 멸망의 갈림길이 되는 그 날

심판이 이루어진 후에 여러분은 상을 받든지 형벌을 받든지 할 것입니다. 달란트에 관한 예수의 비유처럼, 하나님의 은사를 잘 활용하여 이윤을 남긴 사람들은 상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멸망을 받을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를 보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의와 회계할새”(마 25:19)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말하고 간 달란트를 잘 활용하여 이윤을 남긴 사람들은 더 많이 받았고, 그렇지 않은 자는 “헛하고 계몽을 좇아 나니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헤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니라”(마 25:26)라는 책망을 들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한다면 만만 하고 실례로는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이두운 데로 내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많이 있으리라”(마 25:30)라는 두려운 책망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만일 여러분이 믿음으로 자기를 진실하게 부인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곧, 곧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얻을 것입니다(벧전 1:4). 이것을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모든 사람은 산 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할 것이며(벧전 4:5), 이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심판대 앞에는 한 사람씩 한 사람씩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는 여러분 혼자, 한 사람씩 서게 됩니다. 로마서 14장 12절은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흔히 사람들은 자신이 죽나니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지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심판대 앞에 불러 세웁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후 5:10). 여러분은 이 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심판하시는 주님께 무어라 말씀드릴 것인지 준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심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심판대 앞에서는 여러분의 부모도, 배우자도, 변호사도, 의사도, 친구들도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최후심판의 책을 손에 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른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 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 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로 심판을 받을 수 있도다”(계 20:12-13). 사망하는 여러분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죽어도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심판대 앞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심지어 여러분의 목사도 여러분을 도울 수 없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의의를 제기할 수 없는 최종 심판

심판대 앞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의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던 은밀한 동기들을 포함하여 모든 것들이 백일하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우름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 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니” 심판대 앞에서 감출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핑계나 변명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은밀한 것들을 다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글쎄요, 기억이 나지 않는대요”라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모든 행위가 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전 12:14).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확실한 증거를 토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심판의 날이 이르면 더 이상 변호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그곳으로 끌려나갑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지옥 불에 내던져질 것입니다(마 20:15 참조). 디모데전서 5장 24, 25절은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좇아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잠언 28장 13절은 말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행통치 못하나 죄를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롬 14:10).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으자 하십니까?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심판의 날을 위하여 모든 것을 책에 기록하고 계십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으십시오. 심판의 날에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칭찬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

목사 칼럼

오직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만 전함
(고린도전서 2:2)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
여 편지하기 전 아덴
에서 자신의 장래 선교
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
대한 경험을 하게 된다.
“아덴 사람들이 너희를 보
나 법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행 17:22b),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행
18:1), 즉 그는 아덴의 아레오마고 광장

에서 자신의 학문적 소양과 수사학적 언변을 동원하여 문화 선진 국민
인 아덴 주민들에게 설교했는데, 그 결과는 매우 실망적인 것이었다. 그
러한 경험 후 바울은 자신의 선교 전략을 재검점하며 다음과 같은 결론
을 내린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고린 2:2b).

실로 바울은 누구보다도 탁월한 지혜의 소유자요 학문적 배경을 가진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에 의존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 같은 결심은 정녕 십자가에 자신의 정과 욕심을 못박아
버린 자(갈 5:24)에게서만 발견되는 단호함이다. 그리고 오직 주님을 의
지할 때 비로소 능력과 자유와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자란
의 결단이다.

정녕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써(고
전 1:18) 이를 제의하고는 그 어떤 것으로도 인간을 구원해 낼 수 없다.
혹 예수 십자가가 빠진 증거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즐거움과 편
안함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거기에는 영혼의 그 근본 문제인 죄에
대한 해결을 기대할 수 없다. 참된 구원은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만 일어
나며 이 하나님의 구원은총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역사이다.

세상의 이념은 특정 계층에 호소하고 특별한 부류의 사람들에게만 지
지를 받는다.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다. 예수 십자가 복음이 율바르
게 선포되면 어린아이가 회개하고, 젊은이들도 감격하며, 부유한 자도
기뻐하고 가난한 자들도 즐거워한다. 구원의 은총은 특정 계층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

“누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롬 10:13). 바
울은 이것을 알고 오직 예수 십자가만을 증거하였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
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
을 대하여 그러하리라”(갈 6:14).

그렇다면 역사 이래 최고인 현대 과학과 문명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혹시
단순한 십자가의 도도 너무 유치하고 미련한 것 같아 온갖 학문과 세상
지식을 동원하여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지 그 논리적 근거와 변증적 방법을 마련하는 데 부심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러나 이런 세상의 지혜보다는 복음 전파를 위해 간절히 무릎
꿇고 성령의 인도와 역사를 간구하는 준비 자세가 더 성경적이라는 사
실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속 역사와
복음 전파는 그 주재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 방법도 하나님의 신
령한 방법에 의해 수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세상의 수단과 방법을 찾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무릎을 꿇
고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자. 그리고 위로부터 임하는 전도의 능력과 하
나님의 지혜를 사모하자. 그리고 위대한 구속 역사를 전하신 이도 하
나님이시요, 이를 이루시는 이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을
겸손히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맡기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
하고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고린 1:21).

이희식(목사, 중동2부 지도)

안수집사 칼럼

신령한 예배를 사모하며



이승철
(안수집사, 예배위원회 안내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
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요 4:23-24).
충현교회의 5대 목회 중 제11 번제 목회자는 ‘신령한 예배’입니다. 이것은 교
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그런 만큼 우리도 꼭 해야 할 의무로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많이 듣고 많이 강조되었으니까 잘
실천될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예 승관을 비
리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 우리들의 모습이 참으로 안타
깝습니다.

저는 예배위원회에서 안내자장으로 봉사하면서 신령한 예배의 중요성을
다소 절감하게 되었고 그만큼 고민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예배시작 15분전
까지 예배당에 들어와 차분하게 예배를 준비해야 한다고 누구도 강조하지만,
여전히 예배에 지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늘 보면서
저는 제 자신이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과 점검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가? 정말 내 자신을 전부
드리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인가? 이런 고민 속에서 저
는 크게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깊은 지식이 꼭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불을 담아 분향을 하던 중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죽게 되는데, 이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언짢고...”(레 10:3).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
나님의 거룩하심과 임의로우심을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하심을 깊이 알아야 한다는 것도 알
게 되었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대통령과의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아
마 몇 시간 전부터 준비하고 약속 장소에 일찍 도착하려고 안간힘을 쓸 것입니
다. 젊은 시절 연애했 때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후에 만나지는 약속을 하면 그
때부터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요. 사람을 만날 때에도 잠이 안 올 정도로 마음
이 설레고 두근두근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 시간에 그만큼 정성도 준비도 없다면, 그것은 신령한 예배
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령한 예배를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이 신령
한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
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마음을 하나님에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롬 12:1-2a).

둘째는, 신령한 예배를 위해서는 하나님을 깊이 아는 지식도 필요하지만
주님의 성도들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도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예배가 신령한 예배로 질서 있게 드려지려면, 성도들이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
이 꼭 필요합니다. 먼저 성도들은 앞자리에서부터 앉아야 하고, 자리에 앉
을 때는 가운데서부터 앉아서 다음에 오는 성도들이 편하게 자리를 찾을 수 있
도록 배려해 주어야 합니다. 사실 조금만 우리 마음을 열고 다른 성도들을 배
려하면 이런 일들은 어려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일입
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배
려해 준다면, 우리의 예배는 사랑이 가득하고 질서 정연하게 드려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신령한 예배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충현의 성도들은 세계를 품고 선교하는 교회이니만큼, 우리의 마음도
넓히고 생각도 넓히면서 이웃도 생각하고 나를 위해 작은 자리 하나 양보하면
서 정말 우리 주님이 하 때문에 지신 십자가의 깊은 뜻을 생각하는 변화되고
성숙한 충현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알기에 ...



유미나

이송미

이송미, 유미나 두 청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중에 다녀온 몇 번의 단기선교를 통해 자신에게 임한 주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이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학업을 잠시 접고 9월 7일부터 6개월간 주님께서 인도하신 땅에서 복음을 증거할 것입니다. 성도들께서는 이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며 찬양방식으로 주님께 함께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1. 어떻게 신앙을 갖게 되었는지요?

감사하게도 모태신앙으로 주님의 품안에서 성장하였습니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찬양대와 오케스트라에서 봉사했습니다. 제가 살아온 20년을 돌아보면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지 않으신 순간이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기쁨을 저뿐만 아니라 선교지의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누리길 소망합니다.

2. 평신도 단기선교사로 지원하게 된 동기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취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좇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좇아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골 1:25-27).

주님은 저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기쁨을 알게 하셨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교회의 선교훈련에 참가하게 하시고, 6개월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그 훈련에 참석하더니 나름대로 선교에 대한 비전을 깨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대학교에 들어간 후 갔던 두 번의 단기선교에서 주님이 예비하신 한 영혼 한 영혼을 만날 때마다 매우 감사했습니다.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사용하셔서 주님을 세계 곳곳에서 전하게 하시니 한없이 감사를 드립니다.

3. 앞으로의 희망은?

지금의 삶도 그러했지만, 인간인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은 저를 선택하셔서 주의 자녀로 삼으셨고, 주의 일꾼으로 쓰시길 원합니다. 나는 단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제 자신을 내려놓고, 담대히 나아가기를 하만 됩니다. 단지 나의 희망은 언제 어떤 어려움이 닥쳐올지라도 낙심하지 말며,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두 번의 단기선교를 통해 느낀 것은 모든 것을 주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나는 단지 그분만 따라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단지 주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을 뿐, 각 영혼들에게 찾아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바람이 있다면 내가 주님을 전한 영혼들마다 주님께서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유미나(대학부)

지원동기

삶의 목표를 잊은 채,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 힘들어했습니다. 무엇을 공부해야 할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 나의 미래 때문에 불안해하고 혼란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말씀을 다시금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을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고후 5:15). 2년 전, 말씀을 통해서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다는 나의 인생 목표를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그리고 여전한 지금도 신실하게 나와 동행하시며 나의 부족한 모습과 더러운 나의 죄를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려주시고 나를 사용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너무나 크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온전히 그의 부르심에 순종하려 합니다. 그의 사랑과 비밀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귀한 영혼구원사역에 제가 사용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보잘 것 없는 인생을 통해 일할 수 전지전능하시고 무한하신 우리 하나님의 비전을 확실히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단기사역을 지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게 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을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딤후 1:7-9).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상 단기선교를 결심하고 보니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너무나 많이 보였습니다. 나는 10일 이상 부모님 곁을 떠나 본 적도 없는 어린이였고, 할 줄 아는 것도 별로 없고 그렇다고 소위 말하는 믿음이 좋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도 들었고, 내가 그곳에 가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걱정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해주셨습니다. '내가 네에게 준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너는 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현지 영혼들을 사랑하고 동역자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항상 근신하는 마음으로 나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고 말씀에 비추어보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복음과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분명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것이지만 말씀을 붙잡고 100%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고 100% 나의 가진 것을 다 드려서 온 맘과 온 몸과 정성을 다해 우리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감추시고 그의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향해 나를 보내시며 나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나의 약함 때문에 그 분의 강함이 드러나며 그 분의 능력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선교를 통하여 나의 인생 속에서 일하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가깝게 만나고, 그 분의 나를 향한 계획과 비전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이송미(대학부)

내 입술을 사용하시길

나에게는 네 번째 선교였다. 이번의 단기선교는 나에게서는 하나의 도전이었다. 졸업생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에 이번이 아니면 선교의 마음을 품기 어려운 환경이 될 것 같다는 생각에 결단을 할 수 있었다.

소망을 품고 하루하루 선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죽지 못하고 살아있음을 느꼈다. 메일메일 회개하며 나 자신과 싸워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던 나 자신이 하나님께 너무 죄송스러웠다. 사역 중에도 불만과 불평이 많았고, 나의 더러운 모습은 보지 못하였다. 처음으로 학생들끼리 간 단기선교에서 나에게 책임감도 요구되었는데, 그저 어린 모습과 어린 마음이 아직도 많아서 섬기려는 것보다 섬김을 원하는 내적인 모습을 보였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나를 사용하셨다. 전도를 할 때에는 복음을 전하고픈 열정을 주셨다. 또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 사람이 과연 내 말을 알아 들었을까하는 의심이 들 때는 그 전도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영혼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확신을 부어주셨다.

◆ 이번 도전에 출발하는 선교팀

기간	팀	팀장	기간	팀	팀장
9월 6일(월)~9월 15일(수)	6교구 3지역	윤성열	9월 7일(화)~9월 16일(목)	1교구 5지역	김창국
9월 6일(월)~9월 16일(목)	15교구 5지역	이강근	9월 7일(화)~9월 16일(목)	15교구 4지역	남용철
9월 6일(월)~9월 16일(목)	15교구 추가지역	이강재	9월 7일(화)~9월 14일(화)	은빛문로	이태복

◆ 현재 사역중인 선교팀

기간	팀	팀장	기간	팀	팀장
8월 31일(화)~9월 10일(금)	16교구 4지역	홍원석	9월 1일(수)~9월 10일(금)	1교구 9지역	김용조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께 기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골 4:3a)

이정민(대학부)

대학부 여름수련회 후기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지난 8월 17일부터 19일까지 대학부 여름수련회가 충현기도원에서 있었다. 2박 3일 동안 여러 강의를 통해서 디모데후서 전장을 깊이 공부하며 묵상했던 귀한 시간이었다. 디모데후서는 복음을 전파하다가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서 사형집행을 앞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를 향해 간절한 마음으로 썼던 편지이다. 비좁고 차디찬 로마감옥에서 밤낮 디모데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바울의 간절함을 2천년이 지난 지금, 디모데후서를 통해 다시 한번 깊이 느낄 수 있었다.

이번 수련회 주제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였다. 수련회에 참석하기에 앞서 군사에 대해서 생각을 해왔었다. 군사는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좋은 군사는 자기를 죽이고 대장의 명령에 순종하며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리고 평소에도 힘들고 어려운 훈련을 묵묵히 감당하며 훌륭한 군사로서 성장을 도모하는 사람이다. 그런 관점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 중 한 사람이었다. 그는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권유한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받지만 우리가 그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

모데에게 항상 우리보다 앞장서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영원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자신이 당할 압박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을 주심을 신성하고도 이야기한다. 그리고 항상 청결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복음을 힘써 증거하라고 권면한다.

방학 때마다 있는 수련회를 통해서 다음 한 학기동안 캠퍼스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결단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의 모습으로 한 학기를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단순히 다음 한 학기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인생 동안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살아가야 할 것을 다짐하며 결단하게 되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과 어려운 상황들이 분명히 있다. 그것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삶의 대장임을 확인하며 좋은 군사로서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한다.

이번 수련회는 디모데후서를 통해 많은 말씀을 듣고 배우고 다짐하며 결단하는 시간이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는 하나님의 사도들도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배우고 확인한 일에 의거하고 권면한다. 이에 수련회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것을 소망하며 남다른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한다. 그리고 묵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해 배우고 확인한 일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할 것이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살아왔던 삶을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딤후 4:7).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나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소망했다. 내 삶 중에서 생활은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것을 주님께 드리며 헛된 쾌락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쾌락을 향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믿음을 지키고 달려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였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했던 것처럼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한다.

박준성 (대학부)

여름성경학교를 마치고

복음에 반응하는 아이들

나는 유아부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동안 이번 성경학교가 참 귀하다. 이는 생각 않았다. 그 주제가 '새사람이 되었어'였기 때문이다. 이제 신약의 첫 발견을 내딛는 것과 같은 유아부 아이들이 평생 삶 속에서 꼭 기억해야 할 주제가 바로 거듭남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사실을 성경학교에서 전할 때 아무리 거창한 것을 하더라도 거듭나게 하시는 성경에서 역사하시지 않으시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에 하나님께 간절한 심정으로 매달리며 성경학교를 준비했다.

드디어 성경학교가 시작되었고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아이들에게 거듭남에 대해 들려주었다. 특별 활동시간에는 아이들이 '용서해주세요' 나무에 자신들의 잘못을 쓴 열매를 직접 붙이는 시간을 가졌다. 아이들은 '용서해주세요' 나무에 열매를 붙이며 회개의 말씀을 몸으로 배웠다. 나는 그들이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회개하는 입술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러한 아이들을 보며 죄를 깨닫고 회개함을 구하는 거듭남의 회개로 아이들이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렸다. 또한 교사로서 복음을 가르치는 내가 아이들처럼 순수하게 회개하지 못했음을 돌아보고 회개했다. 그로 인한 감사와 기쁨을 어린 영혼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진정 감격스러웠다.

다음날에는 루디아에 대한 말씀을 배우고 아이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후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해주었다.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자는 말에 크게 대답하는 어린 아이들을 바라보며 마음이 크게 감동되었다. 그리고 기뻐하며 준비하였던 사개오 이야기를 들려주며 사육이 없이 욕심부리며 살아가던 죄인들이 예수님을 만나 새사람이 된다는 놀라운 복음 앞에 서있던 아이들의 눈이 빛나는 것을 보았다. 그 복음에 아이들이 반응하는 것을 보며 하나님께 참 감사했다.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귀한 어린 심령들을 이루만 주셨다. 그리고 나의 죄로 사하고 더러워진 심령도 그 손길로 무뎠어졌다. 성경학교를 마치고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감사함으로 충만했다. "성경학교의 모든 과정을 맡아 주관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비범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허에스데(유아부교사)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①

하나님의 선택, 제비뽑기?

어떤 사람들은 결정하기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경우, 주님께 기도하고 제비뽑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결과가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올바른 방법일까요? 성경에 있는 제비뽑기에 관한 몇 가지 사건에 대해 문답하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구약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가나안명 분배(민 26:55), 이진(의 분배)서(사 10:20-21) 등 자신의 뜻을 인간에게 전하는 방법으로 제비뽑기를 여러 번 이용하셨다. 이것은 제비뽑기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의 뜻을 가르쳐주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니니까?

A.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주창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뽑는 제비를 얼마든지 결정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비를 뽑는 것이 믿음에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제비를 뽑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착각입니다. 위의 세 가지 경우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결정을 보여주시기 위해 제비뽑기를 친히 명령하신 것입니다.

Q. 요나의 경우(요 1:7)는 하나님이 명령이 없었는데도 사람들이 제비를 뽑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느정도 알게 된 것 아니니까?

A.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의 제비뽑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이지만, 제비뽑기가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받는 방법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Q. 신약성경에서는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던 사도들도 제비를 뽑아 어디를 열한 사도의 수에 가입시키지 않습니까(행 1:26)?

A. 이 부분에 대해 알고 있어서입니다. 바로 그 다음 사도행전 2장에 성경감시기간이 나오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일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율법의 선택(레 16:8)인 제비뽑기를 허용하셨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지금, 제비뽑기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제비뽑기를 사용하라는 명령이나 약속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시가 없이 그것을 사용하고 의존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고 인간의 막대한 무지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 주님께 고백하며 간구할 수 있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대만 역사의 주인됨과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 주신다면 우리는 삶에 담긴 선택의 문제를 해결할 바른 길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약 1:5).

(정리/편집실)

교회탐방 33 **아멘찬양대**

교회설립기념 찬양예배를 맞이하며

아멘찬양대는 하나님 찬양하기를 사랑하는 180여 명의 성도들로 이루어져 있다. 다른 찬양대에 비해서 연령대가 높은 편이다. 그래서인지 구역예배 같은 푸근한 분위기가 풍겼다. 나누는 대화도 음악에 관한 것보다는 팀원들 간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 등의 주제가 주를 이루었다. 친척보다는 노련함으로, 만족보다는 은연로 나누고 찬양했다.

아멘 찬양대는 교회설립기념 찬양예배에서 “여호와와 위대하시다”라는 주제로 서순성 지휘자의 지휘와 함께 “여호와와 위대하시다”를 포함, 총 6곡을 찬양한다. 아멘 찬양대의 각 파트장과 임원들로부터 각 찬양과 연습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김영순 집사(알토 파트장) - “여호와와 위대하시다”에 보면 “이것을 자손에게 전하시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복음에 대한 의미를 찬송을 통해 사람들에게 전해 주고 싶었다. 이 가사를 부를 때마다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자손에게 전하시오.” 마치 무슨 보물을 전하려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전옥순 집사(소프라노 파트장) - 그래서인지 그 부담감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하고 주님을 더 많이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찬양 자체는 어느 때보다 더 마음에 와 닿습니다. 특히, 그 밑에 있는 밑에 찬양하다 보면 십자가의 사랑과 선교가 연결되는 위임목사님의 설교가 생각나 더 깊게 찬양하게 됩니다.

유진호 집사(베이스 파트장) - 연습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처음에는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대원들이 아무런 불평 없이 정말 열심히 있는 것에 감동합니다. 오이려 대원들께서 주님을 향한 열의를 배웁니다. 쉽게 지나칠 수 있는 것에 얼마나 깊은 의미들이 있는지! “사도신경”을 그냥 읽을 때는 그 의미를 명료하게 몰랐는데 음을 넣어 부르며 연습하다가 가사들이 깊게 와 닿습니다.

조지은 집사(부흥부) - “십자가 그 밑에”라는 찬양 안에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게 만드는 가사들이 있습니다. 십자가 그 밑에서 한량없는 그 영광을 발견하면 그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내가 된다는 뜻이 생각되면 십자가 그 밑에 들어가기도 못할뿐더러 조금이라도 십자가 아래 있으면 정말 보잘것없는 나를 발견하고 곧 십자가



의 안식을 갖는 것입니다. 대원들 모두가 이러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대원들이 거의 빠지지 않고 찬양의 은혜에 꼭 빠져 있습니다.

김진국 집사(부대장) - “사도신경”은 기본적인 신앙고백이며 쉽게 외우고 지나칠 수 있는데 사실 그 안에 얼마나 큰 은혜의 가사가 있는지 모릅니다. 이번 찬양연습 중에도 부를 때마다 큰 은혜가 됩니다. 항상 새로운 느낌입니다. 찬양대원들도 같은 은혜를 체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대원은 유약을 가지고 되어 있었는데 유약 날라가지지 미루고 연습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들 안에 사도신경의 신앙고백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방소애 권사(부대장) - 모든 찬양이 은혜롭습니다. 하나같이 감사할 가사들입니다. 대원들이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고 서로를 아끼는 사랑을 보이는데 아마도 찬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끝까지 서로 아끼며 사랑하는 모습으로 찬양하기를 기도합니다.

이계인 장로(대장) - 연습시간이 너무 급하게 잡혀 대원들에게 미안합니다. 그런데도 불평 없이 잘 모여 감사합니다. 처음에 선정된 곡들 들었을 때는 귀에 익은 곡들이 많아 조금 소홀히 생각했었는데 연습을 하는 동안 찬양 속의 신앙고백들이 얼마나 주옥같이 되어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귀에 익은 곡들이나 가사를 더 잘 이해하게 되어서 은혜가 더 큼니다. 특히, “여호와와 위대하시다”는 이번 교회설립 기념주일과도 잘 맞기 때문에 찬양할 때마다 더 큰 감동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오래전부터 불러온 곡이지만 부를 때마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찬양을 듣는 성도들도 경청자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들으면서 함께 찬양하는 자세가 되었으면 한다. 이런 찬양대만의 발표가 아니라 찬양예배이기 때문이다. 이렇기 때문에 나는 아멘 찬양대 대원들은 오케스트라 대원들과 이변에 어떤 오케스트라로 찬조 나올 다른 찬양대의 오케스트라 대원들에게도 소고와 감사의 말을 남겼다. 중현교회와 51년을 지내오는 동안 역사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을 되새겨볼 좋은 시간이 될 것이다. 함께 동참하여 아멘 찬양대가 부르는 깊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도록 하자.

조지은/편집실

상반기 교양양성부 무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아무리 좋은 선물을 받아도 그 선물을 사용할 수 없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선물이 아니라 하나의 문젯거리가 될지도 모릅니다. 교회학교의 학생들은 선생님이 아주 귀한 선물입니다. 그 영혼이 성장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은 그 선물들이 우리에게 주는 큰 기쁨입니다. 그렇게 귀한 영혼들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은 교사에게 주어진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귀하고 좋은 선물을 받았다고 해도 그 선물이 줄 수 있는 기쁨을 잘 살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선물이 아니라 단지 고민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자라날 영혼을 선물로 받았다고 해도 준비되지 않은 교사는 그 선물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과 같습니다. 도리어 그 선물들이 커다란 짐이 될 것입니다.

교양양성부에서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왜 그 영혼들이 우리에게 선물이 되는지 그 선물들이 어떤 포장지로 싸여 있는지 우리가 그 속을 보기가 힘들지 어떻게 그들을 싸고 있는 포장지를 뜯고 그 속의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지 알게 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왜 그런 선물을 받았고 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어려움에 느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선물을 열어서 볼 줄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교양양성부를 수료한 후 다시 그 영혼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 영혼 한 영혼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선물임을 알아가는 것이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양원 수(중등1부 교사)

다음 주일 찬송

161장 “대속하신 구주께서”

다음 주일 찬송 “대속하신 구주께서”는 요한계시록 1장7절에 있는 “볼지어다 내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지어도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라는 말씀을 배경으로 작사되었습니다.

각시자 세비 목사는 웨슬레로부터 사명을 받아 킹즈우드에서 광부들의 자녀들을 가르친 감리교의 첫 평신도 전도자였으나 웨슬레의 《자유애》교리에 다른 견해가 생겨 감리교 운동을 버리고 칼빈주의적 신앙 노선을 따라서 자신의 종교 단체를 조직하기도 하였다.

그는 세 개의 성가집을 내며 많은 찬송가를 썼으나 불과 몇 편만이 잘 알려져 있다. 그 중 그리스도의 제마를 읊은 이 찬송은 영국의 마틴 마던(Martin Madan)이 그의 찬송가집 《시와 찬미의 수집》을 펴낼 때 존 세닉(John Cennick, 1718-1755)목사가 1750년에 쓴 “보라 무수한 나팔소리 울리니”에서 한 절을 빼헤 이 찬송의 3절을 삼았고 나머지는 찰스 웨슬리(Charles Wesley, 1707-1788)가 1758년에 쓴 “보라 구주께서 구름타고 오신다”에서 택하여 구성한 것이다. 이는 두 찬송가에 담긴 사상이 같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계 22:20)라는 심정을 가지고 불러야 할 찬송이다.

(전양원원회)

새·가·득·을·환·영·하·나·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2469	이유진	16 소년부	류한영(1)	2487	김효상	19 사남부	전현신(5)
2470	김종필	12 청년1부	정원훈(2)	2488	박이정	5 청년2부	조인혜(2)
2471	이혜선	19 청년1부	유병준(원)	2489	임준환	5 청년2부	조인혜(2)
2472	홍진섭	1 교역자		2490	김지나	19 고등부	지효정(원)
2473	이우영	1 사모		2491	권우하	19 대학부	김유리(원)
2474	한성민	1 교역자		2492	김보림	19 청년1부	김복순(16)
2475	한현희	19 대학부	태영민(1)	2493	김지현	19 대학부	박옥희(원)
2476	박옥희	19 청년2부	태영민(1)	2494	조인수	4 청년1부	조준우(12)
2477	안소연	19 대학부	김선영(1)	2495	백석영	19 대학부	홍승연(원)
2478	이호영	6 청년1부	유병준(원)	2496	라병은	5 청년2부	
2479	정해나	19 고등부	이덕환(원)	2497	한민원	9 청년2부	권두형(2)
2480	김정표	6 청년2부	김현준(원)	2498	주정규	19 청년2부	허미정(2)
2481	김종민	10 청년1부	최하은(원)	2499	정문수	19 청년2부	권두형(2)
2482	전성명	5 청년2부	양기수(원)	2500	김진	19 청년1부	권두형(2)
2483	김지아	5 청년1부	이분복(원)	2501	한현정	19 청년1부	안복남(원)
2484	김혜진	19 고등부		2502	이소라	19 청년1부	박미정(19)
2485	정혜미	19 고등부	김효재(원)	2503	태미하	1 청년2부	최희정(원)
2486	김지현	19 고등부	우선재(원)				

※ 중현교회와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득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